

2009년 07월 07일 (화) 21:01

일본 돗토리 縣의 '중.일 우호공원'



'일본내 중국'이라 불리는 돗토리 縣의 중.일 우호공원이다.

이곳은 매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 가는 곳이다. 이곳에 있는 공자와 맹자 동상은 한 일본 기업인이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기증한 것이다.

코마츠 아키오 (주)코마츠 전기 사장이 화제의 주인공 !



일본 소식통에 따르면, 그는 지난해 중국 고전번역 사업에도 참여, 중국과 일본간 우호관계에 큰 공헌을 했다는 것.

국제부 이명근 기자/일본 현지취재





OFF Line 내외**대한뉴스**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(등록번호 문화가00164) **대한뉴스**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(등록번호:서울다07265) On Line일간**대한뉴스**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(등록번호 :서울아00618호) on-off line을 모두 경비한 종합 매체입니다.